

# 기억·연대 공간서 펼쳐지는 그날의 기억

### 세월호 참사 10주기 특별전 '4·16'...27일까지 예술이백그라운드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봄꽃이 만개해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나던 봄날, 영문도 모른 채 사랑하는 이들이 사라졌다. 사라진 자리에는 봄 아지랑이가 어지러이 피어오르고, 바다는 물길을 감추고 하늘은 숨길을 머금었다. 이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0년, '결코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고 했던 우리의 다짐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무엇을 잊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슬픔 그 날 것으로부터 온전히 이들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예술이백그라운드 세월호 특별전 '4·16' 전시 전경

복합예술공간 예술이백그라운드가 오는 27일까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애도와 추모를 위한 참여형 특별전시 '4·16'을 연다.

이번 특별전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간에 방문해 종이에 추모의 글귀를 적고, 작은 종이배를 접으며 함께 이들을 기억할 수 있는 참여형 전시이자 퍼포먼스다.

전시에서는 서양화가 한희원의 회화,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설치예술가 이성웅, 도조작가 이형기의 설치 작품, 연극배우 이당금의 퍼포먼스 등을 선보인다.

한희원 작가는 푸른 바람과 꽃, 인간을 그려냄으로써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상실과 비애를 작가만의 터치로 표현하면서 우리 내면을 어루만지고 영혼을 위로한다.

미디어아티스트 이성웅은 역사적 사건이나 현재 일어나는 사회·환경적인 문제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삶의 이야기들을 여러 방법의 예



도조작가 이형기 작품들

술적 형태로 표현한다. 영상 작품과 함께 배를 형상화한 '종이배'에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고 했다.

도자기와 조각을 아우르며 흙을 구워 작품을 만드는 도조(陶彫) 작가인 이형기는 인위적인 것 하나 없이 굳이 꾸미려 하지 않고 손이 가는 대로 작품을 완성해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로와 서로가 연결돼 있고

의지하는 인물군상을 통해 연대의 마음을 드러낸다. 작품들은 유약 처리 전 불가마에 구워지지 않은 연약한 도자 조각들로,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 존재가 군상을 이루며 서로 연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연극배우로 활동 중인 이당금 씨는 전시 설치와 함께 참사 10주기 당일인 16일 예술가, 시민들과 함께 추모 퍼포먼스를 연다.

시낭송·노래·음악·진혼 춤과 상여소리가 어우러진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전시에 참여하는 네 명 예술가를 비롯해 박애정·공진희·홍윤진·김안순·문은화·라태양 등이 시민들과 함께 그날의 기억을 되새긴다.

이당금 예술이백그라운드 대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우리가 잊지 않을 기억들, 잊고 싶지 않거나 위로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추모의 공간을 마련했다"며 "전시 중심 행사라기보다는 시민들과 함께 연대를 나누고 함께 참여하며 이들을 기릴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墨香'...세월을 품다

### 향목회 세번째 회원전...30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

50-60대 시니어 화가들의 모임 향목회가 오는 30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에서 세 번째 회원전을 연다.

한국화가 박인주 선생의 지도를 받고 있는 향목회는 광주대와 동강대 평생교육원 한국화반 출신으로 구성됐다. 인생 2막을 맞아 취미로 한국화를



선철규작 '복받은 마을'

시작해 작가로서 응비하고 있는 이들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회원 19명이 참여해 총 28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회원들은 그동안 갖고 닦은 필력을 바탕으로 자연 풍경 또는 정물을 수묵으로 표현, 농묵과 진묵을 넘나들며 먹과 필의 맛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선철규 향목회 회장은 "지도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니 제법 그럴듯한 작품이 완성돼 감격스럽

다. 앞으로도 화업에 꾸준히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광주대 호심미술관장은 "한국화라는 쉽지 않은 장르에도 불구하고 박인주 화백의 지도로 성인 학습자들의 화업이 전기를 거듭할수록 새로워지고 있다"며 "대학 미술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광주영화학교 출신 '광주 영화' 4편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선정

###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양주연·이경호·이현옥·김소영 작품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4편의 광주영화가 상영된다"고 15일 밝혔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는 광주영화는 '양양'(양주연), '혼자'(이경호), '기억의 집'(이현옥), '올리브'(김소영)이다. 이들 감독은 모두 지난해 광주영화학교에 참여한 강사이자 수강생이다.

'양양'을 연출한 양주연 감독은 다큐멘터리 수업의 강사였으며, '혼자'를 연출한 이경호 감독은 단편영화 제작 기초반 강사였다.

'기억의 집'을 연출한 이현옥 감독은 다큐멘터리 수업의 수강생이었으며, '올리브'를 연출한 김소영 감독은 2023 광주청소년영화학교를 맡아 수업을 진행했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의 '광주영화학교'가 지역영화·제작자들의 활동 근거가 돼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네트워크가 창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상영작 '혼자'는 감독은 물론



양주연감독 '양양' 스틸컷

이세진(프로듀서), 백종록(제작실장), 허지은(조감독), 오태승(촬영·조명) 등 주요 스태프들이 전부 광주를 기반으로 창·제작 활동을 이어가는 이들이며 광주독립영화협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민간에서 진행되는 광주 유일의 영화 교육 프로그램 '광주영화학교'는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에서 올해 6회째 운영될 예정이다.

첫 수업인 '영화문화 기획자 양성과정' 신청이 다음달부터 시작되며, 가장 관심이 뜨거운 '단편영화 제작 워크숍'은 오는 6월 모집을 시작해 7-8월 두달간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 한국학호남진흥원, 제4회 호남학산책 원고 공모

### 내달 3-10일 접수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제4회 호남학산책 원고 공모전을 개최한다.

호남학산책은 수신을 원하는 누구나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호남 지역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소개받는 사업이다.

현재 1만여명에게 민속의 재발견, 명시초대석, 풍경의 기억, 맛기행, 고문서와 옛 편지, 미지의 초상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원고가 제공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호남의 문화·예술·역사·명소 등에 대한 수기나 칼럼을 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0일까지이며, 이메일(kamjabong@hiks.or.kr

) 및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학호남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은 "이번 호남학산책 원고공모전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호남 지역의 풍요로운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광주 친환경

## 수목장 · 가족장

### 24시간 연중무휴

### 8상담문의

# 062-449-4446

